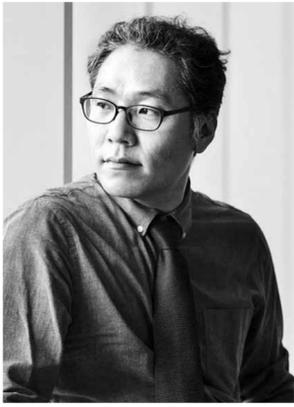


# “아버지가 만든 ‘임 행진곡’ 세계화 작업 감회 새로워”

〈소설가 황석영〉

**‘임 행진곡’ 관현악 서곡 작곡 맡은 황호준 작곡가**  
광주 운암동 살때 삼촌들 2층 방서 커튼 치고 녹음하는 것 지켜봐 작곡가 활동 근거가 된 노래...부친 “자유롭게 재해석하라” 조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오늘날 제가 작곡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 노래입니다. 당시 ‘삼촌’이라 불렀던 이들의 무릎에 앉아 이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현악곡 서곡의 작곡 위촉을 맡은 황호준(47) 작곡가는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이 24일 마련한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기자간담회’ 차 광주를 찾은 황 씨를 만났다. 그는 “1980년을 전후로 광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기억은 아무리 객관화하려 해도 여러 기억이 주관의 영역에 얽혀 있어 펼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씨는 광주에고와 중앙대 한국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국악관현악, 실내악, 오케스트라 등의 작·편곡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쳤다.  
큰 키에 준수한 용모의 그는 어디선가 한번은 본 듯한 익숙한 모습이었다. 얼마 후 그가 소설가 황석영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시대를 거슬러 젊은 시절의 황석영을 마주한 듯한 작각이 들었다. 또한 그는 오월을 다룬 대표 소설 ‘깃발’의 작가 흥희담의 아들이기도 했다. (황석영과 흥희담은 오래 전 이혼을 했다)  
황호준 씨는 “유년 시절의 광주 기억을 붙들고 살아온 지 벌써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작곡의 기회에 대해 영

데, 당시의 집터는 지금의 문예회관이 들어선 곳입니다.”  
황 씨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이야기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박힌 장면들은 어제의 일처럼 또렷했다. 그는 “운암동 2층 집에서 노래 녹음을 하던 날이 특히 기억난다”며 “평소 아버지는 2층 집필실에서 글을 쓰셨는데, 그날만은 사람들을 모두 2층으로 올라오게 했다”고 덧붙였다.  
무거운 커튼이 쳐지고, 내부의 소음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음’을 한 뒤 녹음이 시작됐다. 노래는 장엄했고, 무언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정서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한다.  
이번 작곡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도 궁금했다. “아버지는 늘 제가 한 사람의 예술가로 성장하기를 바랐다”며 “그것이 예술을 매개로 한 부자의 정이었다”고 웃었다.  
“아버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 당시에는 당대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현재의 예술과 관객을 위해 담아내야 할 정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원곡에 짓눌리지 말고 자유롭게 지금의 정서에 맞는 재해석을 했으면 한다고 조언을 하셨죠.”  
그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전교조와 관련된 광주지역협의회라는 학생 조직을 만들었다가 안기부에 끌려가기도 했다. 그 이후로 자퇴를 당했고,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다. 그의 삶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자장은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문화재단 김운기 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 원 작곡가인 김종률 사무처장, 제작위원장 김승일 조선대 명예교수, 김희정 ACC공연사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 두륜산·조계산 등 산악형 도립공원 면적 조정

두륜산, 조계산, 천관산 등 전남 산악형 도립공원 면적이 사상 최초로 조정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립공원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공원 구역·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뒤 오는 5월 중 도립공원 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두륜산과 조계산, 1998년 지정된 천관산에 대한 면적 조정이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공원법은 10년마다 지역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 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

변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생태계 보전 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그동안 도립공원에 대한 변경 요인이 크지 않아 면적 조정이 없었다.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라 두륜산 도립공원 면적은 33,399㎡에서 32,911㎡로, 조계산 도립공원은 27,251㎡에서 26,751㎡로 줄어든다. 천관산 도립공원만 7,611㎡에서 7,941㎡로 면적이 늘어난다.  
전체 면적은 68,251㎡에서 67,601㎡로 19만6000여 평에 달하는 0.65%가 축소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진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진리(사 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합평 출신인 이진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주교과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6회로 검찰에서 제주시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작년 9월부터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장을 맡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이 3일 앞으로 다가온 24일 오후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을 전 세계에 알릴 경기도 고양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 최고지도자 첫 방남 김정은 국민급 예우

**속소·차량 제공 않고 군 사열...예포 발사·국가 연주 생략**  
**만찬 메뉴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특산물 오를 듯**

청와대가 오는 27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국민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을 국민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호나 의전, 경비 부담, 숙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통상적인 ‘국민 예우’와는 다를 것”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국민 자격으로 방남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이 합의한 정상회담 일정에 공식 환영식과 환영 만찬이 들어있었던 만큼 국민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 방문 시 선보이는 예우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두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일치기 회담인 만큼 별도의 숙소나 체재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김 위원장이 오전부터 판문점에만 머무를 예정이다. 이서 차관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리와 군을 사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남북의 특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예포 발사나 양국의 국가 연주와 같은 의전은 생략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지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측은 예포 발사와 양국 국가 제양 등의 의전은 생략했다. 청와대는 의장대 사열이 진행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만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산 민어해삼 편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산 쌀로 지은 밥이 오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그분들 고향과 일터에서 먹을거리를 가져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 메뉴로 육류관 평양냉면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북측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년시절을 보낸 부산의 대표적 음식인 달고기 구이(현실생선 구이)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년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되스티’를 우리 식으로 재해석한 감자전도 선보인다.  
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 당시 물고 간 소 때를 키운 충남 서산 목장의 한우를 이용해 만든 숯불구이, 윤이상 작곡가의 고향인 통영 바다 문어로 만든 냉채도 만찬 메뉴로 선정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 대통령-김정은 정상회담 전 통화 가능성 낮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핫라인으로 통화하기로 한 남북 간의 합의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상회담 이후로 통화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상 간 핫라인 통화 일정을 두고 “정상회담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남북이 서로 상의해서 굳이 (정상회담 전 통화) 필요한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안부를 묻는 정도라면 꼭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안 할 가능성이

51%”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고위급회담 역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반적인 회담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 고위급회담을 할지, 아니면 (다른) 상호 간 조율을 통해 논의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 등을 위해 검토됐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북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

## 혈당조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씩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약!!!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